제4강 나가르주나

◇개요: 나가르주나(Nāgārjuna; 龍樹, 150?~250?)를 유명하게 만든 개념은 바로 공(空)입니다. 어떤 것이 공하다는 것은 그것에게 불변하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인가 영원불변하다고 믿는다면, 그것이 변하거나 소멸할 때 우리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가 모든 것은 공하다고 이야기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요. 심지어 그는 자신이 말한 공(空)이란 개념도 불변하는 실체로 오해될까봐 걱정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주장하는 공(空)도 공하다[空空]"는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지요. 일곱 번째 주에는 나가르주나의 공 개념을 가장 잘 보여주는 텍스트, 그의 주저 『중론(中論)』을 읽어볼 생각입니다.

◇키워드: 공(空), 중도(中道), 연기(緣起), 인연(因緣), 고통, 열반

1. 나가르주나의 삶

1. 나가르주나는 남인도의 바라문 계급 출신으로 태어났는데, 어려서부터 총명해서 바라문들이 베다를 낭송하는 소리를 듣고 바로 그 문장을 암송하고 뜻을 이해했을 정도였다. 젊은 나이에 이미 다방면에 재능을 나타내었는데, 세상의 깊은 진리를 통달했다고 생각한 그는 세 명의 친구들과 함께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고자 은신술을 익히게 된다. 은신술을 이요하여 네 사람은 왕궁에 들어가 궁중의 미녀들을 모두 범했다. 몇 달 후 후궁 가운데 임신한 사람이 생기자 왕은 범인을 잡을 것을 명령했다. 마침 지혜로운 신하가 있어 침입자들을 처단할 수 있었으나 나가르주나만은 용케 빠져나올 수 있었다. 나가르주나는 비로소 욕망이 고통의 근원이며 재앙의 뿌리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출가하였다.

2. 불교에 귀의한 나가르주나는 90일 만에 삼장[경(經), 율(律), 논(論)]을 독파하였다. 그는 인도 전역을 편력하면서 더 읽을 경전을 구해보는 한편 외도의 논사들이 주장하는 교의를 논박하고 복종시켰다. 자만에 빠진 나가르주나는 가르침과 계율을 [다시] 세우고 의복과 의식을 독자적으로 만들어 기존의 불교 교단과 약간의 차이를 두었다. 그는 홀로 수정으로 된 방에 거처하면서 새로운 계율과 의례에 따라 제자들을 받아들였다. 용 한 마리가 나가르주나가 아만심에 차 있는 것을 보고 측은히 여겨 그를 바다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 용궁의 칠보로 장식한 창고를 열어 대승의 경전들을 보여주었다. 나가르주나는 이것을 받아 90일간 읽고 남을 이롭게 해야 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된다. 마지막으로 용은 경전이 담긴 상자를 하나 건네주는데, 이 경전들로부터 나가르주나는 공의 진리를 체득하게 된다.

3. 남인도로 돌아온 나가르주나는 외도를 복종시키고 크게 대승의 불법을 폈다. 여러 차례의 논쟁을 통해 많은 왕공과 장자, 브라만들을 불교에 귀의시켰다. 소승불교의 한 법사가 나가르주나에게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나가르주나가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내가 이 세상에 오래 머물기를 바랍니까?" 소승법사는 그의 장수를 바라지 않는다고 하자 나가르주나는 조용한 방으로 들어가 며칠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다. 제자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 보니 매미가 허물을 벗은 듯이 죽어 있었다. 나가르주나가 세상을 떠난 지 백 년이 지났는데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남인도의 여러 나라에서는 그를 위해 묘를 짓고 부처님과 같이 공경하며 섬기고 있다. 그의 어머니가 아르주나라는 나무 아래에서 그를 낳았으므로 아르주나라고 하며, 용이 그의 도를 완성시켰으므로 나가[龍]라고 이름 지었다. 이리하여 그의 이름이 나가르주나가 된 것이다.

2. 『중론(Mūamadhyamakakāikā)』 훔쳐보기

1. 어떤 존재도 인연[因緣, pratiya-samutpanna]으로 생겨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어떠한 존재도 공하지 않은 것이 없다.(MS 24.19)

2. 만약 모든 존재를 자성을 가진 실체로 본다면 그대는 그 존재가 인연없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MS 24.16)

3. 사물이 참으로 존재하는 것[有者]이라면 [즉 자성적 존재라면] 소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MS 7.30)

4. 존재하지 않는 것[無者]이 소멸한다는 일도 있을 수 없다. 그것은 머리를 두 번 자르는 일이 있을 수 없는 것과 같다.(MS 7.31)

5. 행위에 의해 행위 주체가 있다. 또 그 행위 주체에 의해 행위가 작용한다. 그 외의 성립의 원인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MS 8.12)

6. 유(有)에 집착하면 상주론(常住論)에 떨어지고, 무(無)에 집착하면 단멸론(斷滅論)에 빠진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유(有)나 무(無)에 의지해서는 안된다.(MS 15.10)

7. [어째서 유무의 견해가 단상의 견해로 귀착하는가?] 자성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면 상주론에 빠지고, 과거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고 함으로써 단멸론에 떨어지기 때문이다.(MS 15.11)

8. 자아가 없는데 어찌 자아의 소유[我所, atmani]가 있을 것인가. 자아와 자아의 소유가 없으므로 그는 자아의식도 없고 소유 의식도 없는 자가 된다.(MS 18.2)

9. 안으로나 밖으로나 나[我, atman]라는 생각이 없고 나의 것[我所, atmani]이라는 생각이 없다면 집착은 없어질 것이요, [집착이] 없어진다면 [그것을 토대로 하는] 생도 없어질 것이다.(MS 18.4)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10. 만약 번뇌가 자성을 가지고 실재하며 누군가에게 속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끊을 수가 있겠는가. 누가 자성을 버릴 수 있겠는가.(MS 23.24)

11. 인연으로 생겨난[衆因緣生, pratitya-samutpada] 모든 것을 우리는 공[空, sunyata]하다고 말한다. 그것은 임시로 시설된 것[假名, prajnapti]으로 이것은 또한 중도[中道, madhyama pratipat]이다.(MS 24.18)

12. 어떤 것이든 연기적으로 성립하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하지 않은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MS 24.19)

13. 만일 이 모두가 공이 아니라면 [무엇이] 생겨나는 일도 없고, 소멸되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네 가지 진리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MS 24.20)

14. 사물에 자성이 있다면, 세계는 생성과 소멸이 없고[不生不滅], 변화와 다양성도 없을 것이다.(MS 24.38)

15. 위대한 성인이 공의 진리를 이야기한 것은 갖가지 견해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만일 공이 있다는 견해를 다시 갖는다면 어떤 부처도 그런 자를 교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MS 13.9)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